

보락, 식품첨가물 특허등록 왕국!

2002년부터 4건 취득에 에리스리톨 관련특허 2건 ... 기호식품 관심

식품첨가물 및 식품향료를 제조하고 있는 보락(대표 정기련)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4개의 특허를 취득하고 항암제 기술을 이전하는 등 연구개발의 투자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3년 2월24일에는 바이오엔진과 함께 50억원을 투자해 올리고당과 과당을 이용한 김치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해 올리고당과 과당을 이용해 김치를 제조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식품첨가물에 적용해 다양한 기호식품을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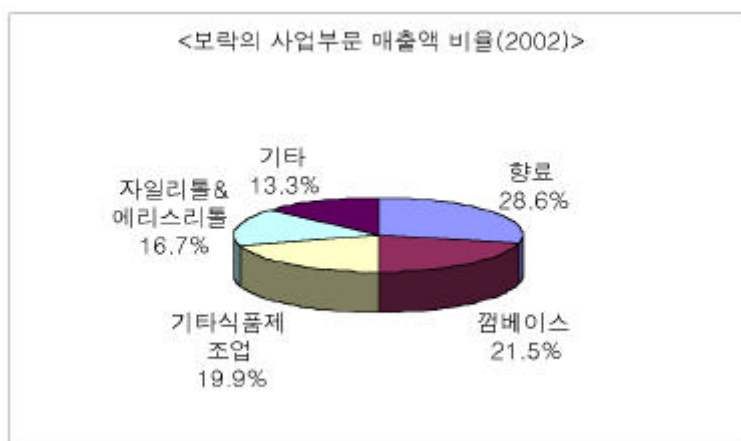
2003년 1월에는 바이오엔진과 함께 4억원을 투자해 배양조건을 최적화한 에리스리톨(Erithritol)의 제조방법 특허를 취득해 기존 에리스리톨 생산공정에 도입시켜 생산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며, 자일리톨을 이용한 식품첨가물 개발 방법을 연구하던 중 김치 저장기간을 연장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2년에는 팔라티노스 정제과정 중 발생하는 모액을 이용한 에리스리톨 제조방법과 대두 및 대두추출물에 함유된 이소후라본 글루코시드를 이소후라본 어글리콘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특허취득해 반년간 모두 4차례의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리스리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락만이 생산하고 있어 에리스리톨 생산원가 절감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특허취득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소후라본 전환법으로 국내 시장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7월에는 신풍제약에게 Paclitaxel 및 Aceporol 330을 원료로 하는 Paclitaxel 주사제 제조기술을 15년간 기술료 3억원에 계약해 항암제 산업화를 통한 기업의 이익창출에도 기여한 바 있다.

보락은 2002년 매출액을 2001년 228억8400만원보다 다소 감소한 225억91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매출 총 이익은 2001년 20억7600만원에서 2002년 23억31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적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사업부문은 향료, 껌베이스,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을 다루고 있으며 매출액 비율은 향료가 28.6%, 껌베이스가 21.5%, 기타식품 제조업이 19.9%, 자일리톨과 에리스리톨이 16.7%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운 기자>